

‘나 하나쯤 위반해도’ 하는 생각 운전자·보행자엔 끔찍한 사고로

나부터 안전운전



6 불법 주·정차문화 개선을

#1. 지난 3월 중순께 새벽시간 때 광주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1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의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2.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44)씨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박모(10)양을 치었다.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했으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박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7일 광주지역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총 25만 2000여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됐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만 100억원이 넘는다. 한 자치구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의 절반이 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됐다.

도로와 골목길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

고 있다. 편도 1차선의 경우 양쪽으로 늘어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실상 한쪽 차선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광주지역 곳곳의 편도 1차선 도로 한쪽에는 줄지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쉽게 없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 박모(45·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 약속시간에 늦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수준을 넘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절해야 할 교통문화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광주 등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야간의 경우 미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주·정차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운전자들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음식 맛이 뛰어나거나 위생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을 뽑는 ‘맛집 선정’ 제도를 남발, 음식점 평가에 대한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 서구는 최근 2015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맛과 위생 등을 고려해 ‘외국인 친화 음식점’ 15 곳을 뽑았다. 서구는 이들 음식점에 지정증을 나눠주고, 관광 안내책자에 수록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초에도 음식의 맛과 전통성,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주 1등 맛집’ 100곳을 선정했다. 당시 선정된 광주 지역 음식점은 ▲한식 78곳 ▲일식

12곳 ▲양식 6곳 ▲중식 4곳 등으로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관광 홍보물 등을 통해 이들 음식점을 홍보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지역 음식점을 대 표화한 음식점으로 ‘미향광주 음식점’ 24곳을 선정, 발표했다. 시는 선정된 음식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광고지 2만장을 제작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초에도 음식의 맛과 전통성,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주 1등 맛집’ 100곳을 선정했다. 당시 선정된 광주 지역 음식점은 ▲한식 78곳 ▲일식



초등생들의 ‘몸짱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사로써 집볼을 이용해 몸의 균형잡기와 근력을 키우는 게임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맛집’ 막 퍼준다

시, 작년 100곳 이어 올해도 24곳 추가

자치구도 선정 남발...공신력 떨어뜨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음식 맛이 뛰어나거나 위생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을 뽑는 ‘맛집 선정’ 제도를 남발, 음식점 평가에 대한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 서구는 최근 2015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맛과 위생 등을 고려해 ‘외국인 친화 음식점’ 15 곳을 뽑았다. 서구는 이들 음식점에 지정증을 나눠주고, 관광 안내책자에 수록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초에도 음식의 맛과 전통성,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주 1등 맛집’ 100곳을 선정했다. 당시 선정된 광주 지역 음식점은 ▲한식 78곳 ▲일식

12곳 ▲양식 6곳 ▲중식 4곳 등으로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관광 홍보물 등을 통해 이들 음식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 서구는 최근 2015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맛과 위생 등을 고려해 ‘외국인 친화 음식점’ 15 곳을 뽑았다. 서구는 이들 음식점에 지정증을 나눠주고, 관광 안내책자에 수록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초에도 음식의 맛과 전통성,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주 1등 맛집’ 100곳을 선정했다. 당시 선정된 광주 지역 음식점은 ▲한식 78곳 ▲일식

시민 정모(33)씨는 “최근에는 어느 음식점이든 스스로 ‘맛집’이라고 홍보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까지 가세해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범 음식점’ 제도와 광주시가 추진중인 맛집 제도의 성격이 겹치면서 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음식점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총 728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각종 우수 음식점 선정 제도를 하나로 묶고, 추진 부서 역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 우수 음식점 제도가 지나치게 많고, 다른 제도와 기능이 겹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는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0분 / 해질 19시 51분 / 달돋이 02시 26분 / 달질 17시 04분

장마전선 북상

차차 흐려져 오후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지역	기온
광주	오후부터가름비 21/28℃
목포	오후부터비 19/26℃
여수	오후부터비 20/24℃
나주	오후부터가름비 21/28℃
완도	오후부터비 20/25℃
구례	오후부터가름비 19/28℃
강진	오후부터비 20/26℃
해남	오후부터비 20/26℃
장흥	오후부터비 20/26℃
순천	오후부터비 20/26℃
영광	오후부터비 19/27℃
진도	오후부터비 20/26℃
전주	오후부터가름비 20/30℃
군산	오후부터가름비 20/28℃
남원	오후부터가름비 19/29℃
홍산도	오후부터비 19/23℃

바다	종량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	☠	☹

올 여름 태풍 1~2개 더 온다

오늘밤 장마복상 호남권 많은 비 예상

28일 새로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5호 태풍 ‘메아리’가 6월 태풍으로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기상청은 올 여름 1~2개의 태풍이 더 올 것으로 예측했다.

90%)가 시작되겠다”며 “28일 밤부터 29일까지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27일 예보했다. 28일 광주·전남·북 예상 강우량은 20~60mm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태풍은 23개 정도 발생해 평년(23.3개)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여름철인 6~8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11~12개가 발생해 우리나라에 1~2개 가량 더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일반직 90명 인사

행정국장 오세균

광주시교육청은 27일 분청 행정국장에게 오세균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임명하고 일반직 사무관 이하 9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7월1일자로 단행했다. 최화봉 분청 행정국장은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옮겼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는 정공섭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 관장이, 정 관장의 후임으로는 현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장 진 관리과장이 직무대리로 각각 발령됐다.

한편, 뇌물비리로 입건된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이모 관장과 광주 선광학교 유모 행정실장은 28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하반기 부실 대학 퇴출 본격화

교과부 대학구조조정 ‘개혁위’ 내달초 발족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 초 부실 사립 대학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업무를 다룰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

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대학의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교과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민간합동위원회 형식이다. 인원은 15명 안팎이며 산하에 3~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연필뉴스

전남 방파제 파손 등 태풍 피해 28억여원

제5호 태풍 메아리로 인한 광주와 전남지역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일부가 유실된 전남지역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피해상황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 피해는 28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목포와 함평, 해남의 주택 5동이 파손되고 농작물 429ha가 침수됐으며 파수나 파로 285ha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시설 중 유실된 300개가 유실됐고 100개가 파손돼 19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지역은 강풍으로 가로수 59그루가 뽑혔으며, 일부 아파트의 유리창과 상가 간판 등이 파손됐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古家 고향의 맛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고가 약오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약오리탕 반마리 20,000원 / 1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한/식/뷔/페 6,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게오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실 원비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수상배경: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웰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순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충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